

**HPC용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

강원대

강원대학교 전자공학과는 벤처기업인 D&M레보러토리(대표 김성중)와 공동으로 「윈도CE」를 운용체제로 한 핸드헬드(H)PC용 음성인식프로그램(모델명 팜보이스)을 개발했다.

강원대학교가 제품개발에 착수한 지 2년만에 성공한 「팜보이스」는 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HPC용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달리 프로그램 실행은 물론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메뉴명령어까지 음성으로 실행할 수 있다.

또 「팜보이스」는 프로그램 실행시 메모리 사용을 최소화하고 부동소수점 연산을 정수연산 변환으로 실현함으로써 기존 제품에 비해 HPC내에서의 프로그램 인식과 실행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이 제품은 잡음환경에서도 음성 인식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잡음제거와 잡음적응 신호처리 기술을 채택해 실외에서 자주 사용되는 HPC의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지문인식 GW 개발

나눔기술

나눔기술은 지문인식 전문업체인 니트젠과 공동으로 자사의 그룹웨어인 「스마트플로우」에 최첨단 지문인식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대폭 향상시킨 「스마트*지문인식」을 개발했다.

그룹웨어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접목한 것은 이번이 국내 처음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그룹웨어 제품에 이러한 인증방식의 채용이 확산될 전망이다.

「스마트*지문인식」은 사용자암호·결재자암호·비밀편지암호 등을 숫자나 문자로 입력하는 대신에 마우스의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장착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는 것만으로 인증되도록 설계돼 거의 완벽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고 사용이 편리하다.

나눔기술은 이 제품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과 같이 높은 보안수준을 요구하는 고객사를 중심으로 집중 보급할 계획이며 기업 등 기존의 일부 고객사와도 공급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부품계수기 개발

남아전자산업

자동차 장비업체인 남아전자산업은 최근 표면실장(SMD)부품의 수량과약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Digital Parts Counter」(디지털부품계수기)를 개발해 성미전자와 삼성전자 등 국내 전자업체에 공급했다.

2년여 기간을 들여 개발한 이 제품은 SMD 겸용 디지털카운트 장비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고집적 회로를 채택, SMD의 피치 및 원하는 계수량을 프로그램할 수 있으며 계수 수량을 관리할 수 있는 시리얼프린팅포트로 「라벨(Label)프린팅」과 함께 PC를 사용해 바코드를 「라벨프린팅」할 수 있다.

특히 이 제품은 32문자로 표시되는 액정표시장치(LCD)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자동에러진단 및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을뿐 아니라 충전용 배터리(10A)로 1주일 이상 전기없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SDSL 라우터
국내 첫 개발

넥스컴

디지털 가입자회선(DSL)기술을 이용, 현재 전용선 이용 비용의 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케 한 대칭형 디지털 가입자회선(SDSL : 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 장비가 국내 처음 개발됐다.

정보통신장비 개발 제조업체인 넥스컴시스템은 DSL기술을 이용한 가입자 장비인 SDSL SOHO형 라우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중소기업에서 고가의 LAN 및 WAN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양방향으로 144kbps~2.3Mbps의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다. 현재 시범 서비스되고 있는 비대칭 가입자회선(ADSL)기술은 상향속도와 하향속도의 차이로 일반 가입자에게 적합한 반면 이 기술은 상향과 하향속도가 같아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기업 가입자에 적합한 기술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장비는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기업가입자 대상의 SDSL서비스에 적합하며 WAN접속용으로 SDSL뿐만 아니라 기존의

V.35와 인터넷인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여타의 전송장비와 LAN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즉시 전용선과 LAN을 구성할 수 있도록 12포트의 허브를 내장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 최소형
지문인식기 독자 개발

니트젠

미국 실리콘밸리 소재 벤처기업 세쿠젠의 한국 자회사인 니트젠이 지난 7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지문인식시스템을 독자 개발, 국내 정보보안·인식시스템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 회사는 지난 92년부터 기초 연구에 들어가 3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해 올초 지문인식시스템의 상용화에 성공, 내수와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초 니트젠과 협력관계를 맺은 국내 정보통신·PC주변기기·금융기기·SW 관련회사들은 다음달부터 이 회사의 모듈을 이용해 개발한 마우스·키보드·도어록·자동현금지급기용 지문인식 응용시스템을 공급하게 된다.

이 회사의 지문인식시스템은 발광다이오드(LED)에서 지문

에 빛을 쏘면 이미지센서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컨트롤러 분석을 거쳐 0.3초에서 1초 사이에서 지문을 인식시켜 주는 원리로 개발됐다.

이 제품은 해상도 450dpi, 검지범위 13.6×16.2mm, 무게 28g 규격으로 제작돼 마우스에 내장할 수 있는 세계 최소형 제품이며 FDA01, FDA10, FDC01, FDP01, FDU01 등 5종류로 구성돼 있다. 윈도NT, 윈도95 및 98 등의 운영체계를 갖춘 컴퓨터에서 사용되며, 도어록 등 개별제품에 적용될 경우 800개의 지문은 저장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C-Arm장치
KT마크 획득

동아엑스선기계

동아엑스선기계는 고주파식 외과 수술용 C-Arm장치(모델명 SM-20HF)가 국산 신기술 인정(KT)마크를 획득했다.

이 회사가 C-Arm장치에 적용, KT마크를 획득한 기술은 「50kHz 직렬 공진형 인버터를 적용한 2.5kW급 모노블록형 고주파 X선 발생장치 개발 기술」로 X선 촬영장치 관련 기술 중 고난이도에 속한다고 이 회사는 측은 설명했다.

한편 출시 4개월만에 다수의 장비를 대학병원에 납품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는 SM-20HF는 고주파 인버터 방식을 채택해 기존 단상장치에 비해 X선 출력을 2~3배 높임으로써 조작자와 환자의 피폭선량을 대폭 줄였으며, 단시간 펄스촬영 기능을 내장해 움직이는 장기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층 인쇄회로기판 원판
차세대 제품으로 전환**

두산

(주)두산이 다층인쇄회로기판(MLB)용으로 공급하는 주력 원판 기종을 차세대 제품 중심으로 전환한다.

두산은 그동안 MLB용 원판으로 중점 공급해 온 다이핑크셔널 원판(모델명 DS-7405MM)의 공급을 대폭 줄이고 거의 모든 생산설비를 차세대 원판인 테트라핑크셔널 제품(모델명 DS-7408(T/C))에 투입키로 했다.

두산은 다만 기존 다이핑크셔널 원판 구매를 희망하는 PCB 업체에는 다이핑크셔널 원판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의 한 관계자는 『주요 PCB업체들이 기존 세트업체와의 관계상 테트라핑크셔널 원판으로 전환할 수 없지만 신제품

의 값이 기존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만간 거의 모든 PCB 업체들이 테트라핑크셔널 원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두산이 이달부터 본격 공급에 나선 차세대 원판은 유리전이온도(Tg)가 1백35도였던 기존 다이핑크셔널 제품보다 10도 높은 1백45도에 달해 고내열성이 향상된 데다 가공시 제품이 휘거나 뒤틀리는 현상을 크게 줄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이 제품은 화학약품에 견디는 성능이 우수하고 노광이나 자동광학검사 공정시 발생하는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이 첨가돼 PCB 공정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5인치 TV,
러시아에서 우수제품 선정**

대우전자

대우전자의 25인치 TV(모델명 25X5PIP)가 러시아 영상 제품 전문지인 Salon Audio Video誌가 실시한 테스트 결과 유일하게 추천제품(Recommended)으로 선정되어 러시아에서 기술력과 품질수준을 인정받게 됐다.

러시아 현지법인에 따르면 Salon Audio Video誌는 러시아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요업체

의 25인치 TV를 대상으로 각 제품의 특징과 화질, 사용편리성 등을 평가한 결과, 대우전자 25인치 TV가 두 개의 튜너가 내장되어 있고, 화질과 음질이 뛰어나며,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판단, 평가대상 중 유일하게 [추천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전자 25인치 TV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PIP(Picture in Picture)성능과 ▲정지화면 ▲동시화면과 멀티화면 화질이 우수해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특히 동시화면은 TV시청 도중 채널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계기로 러시아 현지 소비자들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수출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단말기 리트랙터블 안테나 개발
미래테크에 기술 이전**

전자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은 최근 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 핵심부품 개발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비 총 10억원을 투입, 「이동통신단말기용 리트랙터블(Retractable)안테나」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중소 RF부품업체인 미래테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전자부품연구원측은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핵심기술 5건에 대해 국내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미국·일본에도 각각 특허를 출원해 놓고 있다』면서 『앞으로 미래테크에 관련기술을 이전해 전자파의 인체특성까지 고려한 안테나 실장특성연구와 생산기술 연구를 거쳐 조기 상용화에 나선 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자부품연구원 김중규 연구원팀이 개발한 이 제품은 안테나 접속부위를 독창성 있게 구현한 이중 적층형 헬리컬 안테나로 선진국(100MHz) 제품과 비교해 보다 넓은 주파수 대역(130MHz)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제품은 CDMA단말기 및 GSM단말기 등 이동통신단말기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단말기에도 적용 가능하다.

25인치 TET LCD패널 반자동 검사장비 개발

미래산업

미래산업은 최대 25인치 대형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를 검사할 수 있는 LCD 반자동 검사 장비(Semi-automatic Cell Probe System)를 개발, 국내 LCD업체에 납품했다.

최소 12인치부터 최대 25인치의 대형 LCD 패널을 검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제품은 사람 눈에 의한 목시 검사 장비(Visual Inspection System)로 로봇이 LCD 패널을 자동 이송해 테스트 상태로 만들어 주면 작업자가 영상 구현 상태를 보고 불량 여부를 판단, 결과에 따라 LCD패널을 양품·불량품으로 자동 분류해 주는 장비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의 프리얼라인(Pre-Align) 방식이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설계돼 검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얼라인먼트 타임(Alignment Time)도 기존 일본산 장비보다 50% 이상 빠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비 크기도 기존 제품에 비해 20% 이상 작아 생산공장의 공간 사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운전 조작판은 컬러 LCD화면과 터치스크린 방식을 채택했으며 장비 내부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고장위치는 물론 문제 발생 원인과 해결 방법까지 화면에 표시해주는 최첨단 기능을 탑재, 외국산 경쟁제품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미래

산업 측은 설명했다.

미래산업은 최근 이 제품을 국내 유력 LCD업체에 납품한 것을 계기로 국내외 마케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와치폰’ 뉴욕타임스 호평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개발한 휴대전화 겸용 손목시계 「와치폰」이 최근 미국에서 뉴욕타임즈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뉴욕타임스는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등에서 상상으로만 존재해왔던 손목시계·휴대전화 통합형태의 미래제품을 삼성전자가 개발했다며 음성인식 다이얼링, 전화번호부, 진동기능 등 최첨단 기능을 내장해 세계인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날로그 - 디지털 TV 신호 동시 녹화기술 세계 첫 개발

삼성전자

일반 가정용 VCR테이프에 아날로그 신호와 동시에 고화질 디지털 TV신호를 기록할 수 있

는 기술이 삼성전자에 의해 국내 처음으로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VCR테이프인 VHS테이프에 기존 VHS와 같은 방식의 영화를 아날로그신호로 기록하는 동시에 기존의 아날로그신호에 잡음을 일으키지 않고 추가로 고화질의 디지털TV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 최근 미국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아날로그 VCR에서도 녹화재생이 가능한 것은 물론 디지털VCR에서는 디지털 TV를 통해 그대로 재생이 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우선 아날로그 VCR로 시청하다가 디지털 VCR를 구입할 경우 별도로 디지털 VCR용 테이프를 구입할 필요없이 기존 테이프에 녹화된 내용을 고화질로 시청할 수 있다.

또 VCR테이프 제작업체들은 하나의 테이프에 두 가지 신호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VCR 고객뿐 아니라 디지털 VCR 사용자에게도 동시에 판매할 수 있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디지털VCR용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별도의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이 기술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신호가 동시기록과 함께 별

도로 다른 부가정보를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오디오 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정보 및 교육용 자막을 기록하는 등 응용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개발된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함으로써 VCR테이프 제작업체들에게 로열티를 받고 특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캠코더’ 수출
주력상품 육성**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캠코더를 수출주력상품으로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올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신제품을 대거 출시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총 100만대의 캠코더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캠코더 판매는 올해 내수 12만대를 포함해 총 112만대로 전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또한 10% 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캠코더 수출확대전략은 캠코더가 전 세계적으로 일반가전제품 중 보급률이 가장 저조하고 캠코더 생산업체 또한

10개 미만에 불과해 시장주도는 물론 단기간내에 수출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렌즈 및 테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산 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한 데다 가격은 일본산 제품에 비해 30% 이상 저렴해 캠코더 신규수요가 늘고 있는 독립국가연합(CIS)·동남아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판매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역광 완전보정’
캠코더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올 7월 수입선 다변화 조치 해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캠코더시장을 지키기 위해 역광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 신제품을 개발,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시되는 캠코더는 삼성전자가 1년간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자체 개발에 성공한 「역광 완전보정 기능」을 채용, 캠코더의 가장 큰 문제로서 지적돼온 역광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촬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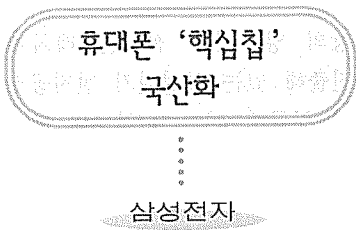
이다.

특히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캠코더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는 7월 수입선 다변화 조치 해제 이후 예상되는 일본업체들의 대대적인 공세를 사전에 차단, 내수시장의 60%를 선점한다는 전략에서 개발한 첫번째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제품은 국내에 시판중인 국내의 제품 중 최대인 디지털 440배줌이 가능해 440m 전방의 물체도 마치 1m 전방에서 촬영하는 것과 같이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휴대형인 캠코더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700g대의 초경량을 실현했으며 소형화에 따른 문제점인 떨림현상도 완벽하게 보정할 수 있다.

이밖에 5시간 연속촬영이 가능한 배터리를 채용하고 라이트를 기본으로 장착하는 등 각종 액세서리를 기본으로 제공,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의 핵심칩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용 휴대폰의 핵심부품인 MSA(Mobile Station Modem) 칩과 BBA(Base Band Analog Processor) 칩 그리고 범용 운영체계를 이용한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 양산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삼성에는 이들 칩을 국산화함으로써 오는 2003년까지 약 20억 달러의 수입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이 개발한 MSM 칩과 BBA 칩은 컴퓨터로 치면 중앙처리장치에 해당하는 휴대폰의 핵심 비메모리 반도체이다. MSA 칩은 휴대폰의 위치를 감지해 기지국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BBA 칩은 무선부문과 MSM 칩간의 데이터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 칩은 CDMA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한 미국의 켈컴사가 세계시장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휴대폰업체들은 켈컴사에 매출액의 5.5%에 달하는 로열티 외에 이들 칩의 수입대금으로 매년 2억~3억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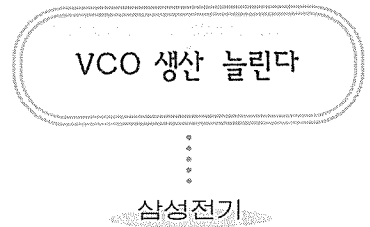
삼성은 이들 칩을 국산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총 2백70억원이 개발비를 투입했으며 개발과정에서 관련 특허 25건을 국내 외에 출원했다.

삼성은 이번 칩의 국산화 성공으로 CDMA 부품중 수입품목은

경량배터리 한 품목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경량배터리도 국산화하기 위해 현재 마무리 연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켈컴과의 계약에 따라 개발된 MSM 칩을 당분간 삼성전자의 휴대폰에만 탑재할 수 있으나 켈컴과의 계약 수정협상을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부품업체들이 VCO 사업에서 손을 떼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기가 0.05cc 이하의 초소형 전압제어발진기(VCO) 등 이동통신기기 핵심부품인 VCO 생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 회사는 이동통신기기의 소형화 추세에 맞춰 핵심부품인 VCO 시장이 0.09cc에서 0.05cc로 바뀔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0.05cc VCO와 RF 유닛 제품용 VCO를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월 200만개 생산해 국내외 이동통신단말기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VCO의 물량증가에 힘입어 앞으로 0.09cc 등 저급

제품의 생산을 줄이는 대신 0.05cc 이하 초소형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 회사는 마쓰시타와 무라타 등 일본의 공세에 대응, 핵심부품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초소형 0.03cc VCO의 개발에도 착수하는 등 이 분야의 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술정보공유 글로벌
4시간 체제돌입**

삼성전기

지난달 정부로부터 기업정보화 종합 1위로 선정된 삼성전기는 글로벌 기술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연구, 개발, 생산, 자재 등 각 부문이 국경을 초월한 신속한 대응체제를 갖추게 된다.

삼성전기는 올 상반기에 글로벌 제품데이터관리(GPDM : Global Product Data Management) 체제를 해외 5개 생산법인에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월 태국에 GPDM서버를 구축한데 이어 4월 1일 중국 동관과 천진법인 2곳에 구축이 완료됐다.

삼성전기는 해외생산이 전체의 40%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에는 50%로 늘어나는 등 해외기 지화되는데, 지금까지 기술정보

를 해외법인과 공유하기 위해 인편과 사내 인트라넷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시간이 길었고, 데이터 전송량의 한계를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 GPDM을 이용해 기술정보 공유시간을 48시간에서 4시간으로, 5일간의 BOM작업기간을 1일로 줄이게 되고, 제품개발 및 변경과 이를 승인하는 과정이 기존의 1/3로 단축돼 신속한 제품개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성전기는 100여명의 엔지니어와 총경비 10억원을 투입해 해외현지에 개별GPDM서버를 구축해가며 6개월만에 구축하게 된다.

삼성전기 GPDM의 특징은 해외 법인에서 자신과 관련된 연구실과 연결되는 정보전달방식이 아닌 각 법인이 전사업부와 연결된 정보공유방식으로 운영되어 시너지 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삼성전기측은 GPDM구축으로 제품개발의 증가와 신제품의 신속한 양산으로 영업력강화는 물론 적은 재고를 보유해도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되어 내실을 바탕으로한 신제품개발의 기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태국 현지공장
하반기에 가동**

삼화전자

삼화전자가 올 하반기부터 태국 현지공장을 본격 가동, 편향요크(DY) 및 고압변성기(FBT)용 코어의 생산·판매에 들어간다.

지난해 태국에 현지법인인 삼화 타일랜드를 설립한 삼화전자는 당초 5월부터 현지공장의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공장 설립 작업이 다소 늦어져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제품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화전자가 오는 10월부터 본격가동에 들어갈 태국 현지공장의 연간 생산능력은 DY용 코어 500만개와 FBT용 코어 1000만개 규모로 국내에서 소성된 재료를 공급받아 연마하는 후공정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삼화전자는 우선 태국 현지공장의 양산제품 전부를 태국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기 현지공장에 공급해 연간 9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린 뒤 점차 생산량과 거래업체를 확대, 태국 현지 공장을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이다.

체질개선 제2창업 선언

성미전자

통신장비업체인 성미전자가 급여·조직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등 재도약을 위한 제2창업을 선언했다.

올해로 창립20주년을 맞은 이 회사가 변신의 몸부림을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97년까지만 해도 상호 앞에 붙던 '초우량'이란 수식어가 지난해 매출급감으로 퇴색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매출은 97년 1천6백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백2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창사이후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이다.

한국통신 등 통신업체들이 투자를 감축한 것이 매출감소로 이어졌지만 자체신제품 개발을 게을리한 것도 사세위축의 한 요인이었다.

새로 취임한 유완영 사장은 최근 개발 영업 인사 재정 등 전 부문에 걸쳐 팀제를 단행하고 연봉제를 도입하는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벤처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답게 결제라인을 단순화해 시장 및 기술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연구개발에 주력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안양공장 내에 완공한 5층짜리 신축건물의 4개층을 연구소로 활용토록 했다.

생산엔 지니어를 포함, 연구기술진 수도 현재 2백여명에서 연말까지 50여명 더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체 신제품 개발을 통해 전체 제품의 70%를 차지하는 수입품 비중을 내년까지 50% 미만으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유선 전송장비 중심에서 인터넷 및 무선통신 분야로 과감히 체질을 바꿈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급형 MPEG2 인코더 보드 개발

시넥틱스

멀티미디어 카드개발 업체인 시넥틱스는 일반 컴퓨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급형 MPEG2 인코더 보드(제품명 엠팩프로)를 호서대학교와 협력, 개발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동영상과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압축, 720×480 해상도에서 초당 30프레임의 동영상, 오디오를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슈퍼 비디오 입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영상신호

와 동시에 저장할 수 있다.

「임팩프로」는 또 윈도 95·98·NT5.0 환경에서 CD롬과 DVD 타이틀 제작에 사용할 수 있고 방송규격인 NTSC·PAL 방식의 영상포맷을 지원, 캠코더를 이용한 가정용 비디오 편집이나 인터넷 기반의 영상회의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우수공급업체로 선정

아남반도체

아남반도체는 지난달 세계 최대의 반도체업체인 미 인텔사로부터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의 우수공급업체(PQS)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PQS는 인텔사가 장비·원자재·패키징 등 자사가 거래하는 각 분야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정기적으로 선정하는 제도로 향후 계약 물량 등에 특혜를 받게 된다.

아남반도체는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 품질과 납기, 수율, 고객서비스 등 전 부문에 걸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초박형 아모퍼스
코어 증산**

아모스

아모스는 최근 전자제품의 경박단소화로 초박형 코어의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두께가 0.7~2mm, 외경 3~7mm의 초박형 아모퍼스 코어의 개발 및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20여종의 초박형 아모퍼스 코어의 생산에 들어가 월 50만~100만개의 제품을 양산하고 있는 아모스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노트북PC, PCMCIA 카드 등에 채용되는 인덕터 등이 소형화되면서 초박형 코어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신제품 개발활동 및 생산설비 증설을 통한 생산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모스는 올 연말까지 생산설비를 증설, 아모퍼스 코어의 월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30% 증가한 800만개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초박형 코어의 생산량을 월 400만개 규모로 대폭 확대해 이들 제품이 전체 생산량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1063 운동' 눈길

아비코

저항기 전문업체인 아비코가 올해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1063」운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운동이 눈길을 끄는 것은 목표치를 제품의 무결·균일 생산에만 두지 않고 협력관계 구축 및 고객감동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시켰다는 점 때문이다.

「1」은 고객을 우선으로 해 고객감동을 이끌어내자는 의미이며 「0」은 완전무결한 제품을 제조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6」은 불량률을 3.4ppm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6시그마」에서 따왔으며 「3」은 주주·사원·고객 3자의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뜻하는 것이라고 아비코 관계자는 설명한다.

**한국형
BAS프로그램 발표**

에스비티

에스비티가 새로운 국제 통신 표준으로 등장한 백넷

(BACNet:A Data Communication Protocol For Building Communication) 표준과 론웍스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차세대 빌딩자동제어시스템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독일 지멘스의 한국법인인 이 회사는 지난 97년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지멘스 본사 연구진과 공동으로 한국화한 BAS프로그램(모델명 데지고)을 국내에 적용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데지고」는 개방형 통신방식에 중점을 둔 제품으로 백넷·론웍스는 물론 인터넷·TCP/IP·프로피버스 등 제반 통신환경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BAS 구축시 인터넷 인트라넷 환경을 통해 시스템에 직접 접속·제어할 수 있으며 CCTV와 인터페이스를 통한 입체적 멀티미디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시스템은 원격감시제어(SCADA) 패키지 시스템을 채택, 설비 및 전력제어시스템을 통합 구성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다.

**인간의 생각을 아는 'BCI
컴퓨터' 연말에 선보인다**

SMC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에 전달

해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기술이 연구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상용화 단계에 접어 들고 있다.

BCI 및 감성공학 전문업체인 SMC코리아는 BCI컴퓨터에 대한 프로토타입 개발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히고 올 연말에 이를 완제품 형태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BCI 컴퓨터는 핵심보드와 소프트웨어(SW) 알고리즘으로 이뤄져 있으며 뇌파 등을 통해 인간의 각종 감성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를 분석 처리하며 분석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을 주도한 SMC코리아의 황민철 박사는 『그 동안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BCI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개발은 진행돼 왔지만 이처럼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제품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BCI와 감성공학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의료·재활·금융·인터넷 등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MC는 BCI 컴퓨터 완제품을 올연말에 선보일 계획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내수판매와 수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패치형 중계기용 안테나 개발

...

에이스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최근 1억 5000만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기존 이동통신 중계기용 안테나에 비해 크기는 3분의 1이고 가격도 30% 이상 저렴한 안테나를 개발,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기존 중계기용 안테나는 PCB기판을 적용한 마이크로스트립트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발된 안테나는 콕시얼 타입으로 패치를 구성함으로써 높은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제품크기를 대폭 줄였고 가격도 크게 낮출 수 있게 됐다.

에이스테크놀로지가 소형 안테나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소형 중계기의 수요확산에 걸림돌로 작용돼온 안테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여 소형 중계기의 보급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이스테크놀로지는 현재 이 안테나에 대해 특허출원중이다.

새도마스크 설비 늘린다

...

LG마이크론

LG마이크론이 새도마스크를 승부사업으로 육성키로 한 전략에 따라 컬러모니터용 브라운관(CDT)용 새도마스크의 설비증설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1000억원을 추가 투자, CDT용 새도마스크 3개 라인을 증설키로 한 2차 장기투자 계획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구미 1공장내에 연면적 3500평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고 우선 17인치용 CDT 새도마스크를 월 30만~40만장 생산할 수 있는 1개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증설투자에 나선 것은 지난 97년에 1000억원을 투자한 컬러TV용 브라운관(CPT)과 CDT용 새도마스크 3개 라인을 성공적으로 가동한 데다 브라운관의 대형화 및 고정세화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회사는 이번에 17인치 CDT용 새도마스크의 최신식 전용라인을 증설투자함으로써 국내 브라운관 3사의 새도마스크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통신용 155Mbps급
트랜시버 국내 첫 개발**

LG전선

광통신용 155Mbps급 트랜시버가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LG전선은 지난 1년간 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자사 부설 광통신연구소에서 송신모듈과 수신모듈을 일체화한 트랜시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발된 일체형 광통신용 트랜시버는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꾼 후 이 신호를 다시 전기신호로 전환해주는 광통신의 핵심부품으로 그동안 국내 수요 전망을 외산제품에 의존해 왔다.

LG전선측은 특히 분리형 트랜시버 모듈의 20판형 연결라인을 9판으로 줄여 시스템 정착밀도를 2배이상 높인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LG전선은 이 제품이 특성과 내수 시장환경을 고려,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시장의 주류로 부각되고 있는 비동기전송방식(ATM) 통신시스템 구축용 시장을 집중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 회사는 이번 일체형 트랜시버 국산화 및 시장공급을 통해 연간 100억원 규모의 수출 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형 디지털 TV’
첫 선**

LG전자

국내 디지털방송 표준규격안에 대응한 디지털TV가 일반에 첫 공개됐다.

LG전자는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한국형 디지털TV 개발 발표회」를 갖고 국내 처음 디지털TV시대의 개막을 선언했다.

특히 이번 한국형 디지털TV의 개발은 세계 TV시장의 중심축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같은 시기에 이루어져 국내 업체의 높은 디지털 관련 기술수준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국내 디지털방송의 조기정착은 물론 국내 안방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디지털TV방송은 지난해 미국이 디지털지상파방송, 영국이 디지털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보다 1년 늦은 오는 10월부터 실험방송을 시작하고 2001년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한국형 디지털TV(모델명 HN-64A1)는 기존 32인치 컬러TV 4개를 합쳐 놓은 크기의 64인치

급 초대형제품으로 사람의 머구멍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1920×1080화소의 높은 해상도와 콤팩트디스크(CD) 수준의 고음질을 제공한다.

또한 자동채널 검색, 한글자막 방송, 한글사용자환경 등 국내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편의기능이 내장됐다.

특히 고화질 변환기능을 채용함으로써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이전에도 기존 아날로그 TV방송 및 DVD플레이어, VCR 등의 프로그램도 고화질로 즐길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디지털TV 생산을 위해 내년까지 구미공장에 연간 3만~5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오는 10월부터 디지털실험방송 시점에 맞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완전평면 TV 첫 수출

LG전자

국내 TV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완전평면TV가 첫 수출된다.

LG전자는 올해 총30만대의 완전평면TV를 수출한다는 계획 아래 중국과 중남미지역에 자체

개발한 29인치 완전평면TV 5000대를 처음 선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완전평면 TV시장에는 일본 소니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선 데 이어 올들어 도시바·샤프 등이 수출을 시작하면서 일본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LG전자의 이번 완전평면 TV 수출로 급격히 확대되도 있는 세계 완전평면 TV시장에서 한·일업체간 치열한 시장점유 확대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올해 중국지역에만 10만대의 완전평면 TV를 자체 브랜드인 「플래트론」을 부착해 수출할 계획이며 수출지역을 유럽 및 미국·일본 등지로 다변화하고 수출모델도 올해 안으로 29인치 외에 32인치, 25인치, 21인치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LG전자는 완전평면브라운관을 자체적으로 생산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여 「플래트론」을 세계 일류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LG전자가 추운 날씨에도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인버터 히트펌프 에어컨 설계기술로 KT마크(국산기술인정)를 획득했다.

LG전자는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주관의 99년도 1·4분기 KT마크 심사에서 「영하10도에서 건물난방부하의 100%를 만족하는 인버터적용 2마력급냉·난방 에어컨」으로 KT마크를 획득, 지난달 7일 인정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이번에 KT마크를 획득한 한랭지향 인버터 히트펌프에어컨은 겨울철에 외부온도에 따라 난방능력이 저하되는 기존 히트펌프의 문제점을 인버터 제어, 인버터 스크롤 컴프레서, 과냉각기 및 전자팽창밸브 등 최첨단 신기술을 적용해 영하 10C 이하의 혹한기에서도 난방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한 차세대형 히트펌프 에어컨이다.

LG 디지털TV는 최근 영국 최고 권위의 신문인 「더 타임스」등 종합일간지를 비롯해 영국 주요 전문지로부터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또 디지털TV 관측차원에서 영국 주요 유통업체, 딜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한 디지털 TV 설명회에는 수천여명의 사람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몰려 LG전자 디지털TV의 성공 가능성을 예상케 했다는 것이다.

실제 LG전자 디지털TV는 영국 최고의 가족 오락용 잡지인 홈엔터테인먼트로부터 「최고 중의 최고」라는 찬사와 함께 화질·음질·기능·편리성 등 모든 면에서 「최우수 제품」평가를 받았으며 위성TV 전문잡지인 위성TV 유럽으로부터는 최고제품임을 인정하는 별 5개(Five Star)를 획득했고 스타프매거진에서도 「최우수제품(Best Buy)」으로 각각 선정됐다.

유럽규격 디지털 TV 영국진출 '성공작'

LG전자

LG전자가 세계 처음으로 지난해 말부터 영국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유럽규격 디지털 위성T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고해상도 LCD프로젝터 시판

LG전자

LG전자가 외산 일색이던 PC 프레젠테이션용 LCD프로젝터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LG전자는 1024×768화소의 XGA급 고해상도에 1400안시루

인버터 히트펌프 설계 에어컨 'KT마크' 획득

LG전자

멘(밝기단위)의 화면밝기를 실현한 「LCD 프로젝터(모델명 LP-XG1)」를 시판했다.

프로젝터는 램프에서 나온 빛을 스크린에 투사해 30~300인치 대형 화면을 구현하는 화면 표시장치로 일본의 엡손과 도시바, 미국의 애스크 등이 국내시장을 과점해 왔는데 이번 LG전자의 시장 진출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LG전자는 프로젝터시장 진출 첫해인 올해 국내에서 1500대를 판매해 매출 200억원을 달성하는 한편 오는 6월부터 중국·미국·유럽 등지로 1만2000대를 수출해 7200만달러의 수출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PC 프레젠테이션용 프로젝터수요는 지난해 3000대에 이어 올해 5000대 등 연평균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세계 시장 규모도 지난해 53만대 37억달러에 이어 올해 80만대 56억달러 규모를 형성하는 등 연평균 60%씩 고성장하고 있다.

‘속보이는 세탁기’
나왔다.

LG전자

LG전자가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누드세탁기」를 출시했다.

LG전자는 최근 누드디자인을 선호하는 신혼부부 및 디자인 감각을 중시하는 고객층을 겨냥해 뚜껑뿐만 아니라 뚜껑 주위 부분에도 투명소재를 사용해 세탁기 내부의 통이 도는 모습은 물론 뒤쪽의 부품까지도 들여다보이는 투명디자인의 「누드세탁기」2개 모델을 개발, 판매에 나섰다.

LG전자가 이번에 출시하는 「누드세탁기」는 99년형의 기존 10kg급 「통돌이 세탁기Ⅲ」상부에 누드패션을 채용해 사용자들이 세탁과정을 눈으로 직접 확인, 세탁상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드부위에 충격강도를 기존 제품 대비 40% 향상시킨 고강성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고광택 강화클리어 코팅 처리를 해 굽힘방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투명광택도도 배가시킨 것이 특징이다.

휴대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EU 15개국에 수출

LG정밀

LG정밀이 계측기의 일종인 휴대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를 유럽연합(EU) 15개국에 수출한다.

LG정밀은 최근 프랑스의 대표

적 계측기업체인 쇼뱅(Shauvin)사와 휴대형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모델명 OS-310M) EU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각종 전자기기의 전기적 신호를 액정 표시장치(LCD)에 주파수 형태로 표시하는 계기로 각종 전자제품을 생산 및 유지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계측 장비다. 이 회사는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국제안전규격인 CE를 획득했으며 우선 1차 물량 3000대를 연말까지 공급키로 했다.

이번에 이 회사가 수출한 제품은 노트북 형태로 기존 외산 제품의 무게가 평균 10kg인 데 비해 2kg에 불과하며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어 현장 기동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PC를 통해 원격 제어와 신호 변화를 추적하는 기능을 갖췄다.

LG정밀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해외시장 다변화에 나설 것』이라며 『이 제품보다 한단계 앞선 스펙트럼 분석기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최초 CDMA무선망
설계 시뮬레이터 개발

LG정보통신

CDMA 이동통신 무선망의 효

울적인 설계 및 최적화가 가능한 획기적인 무선망 설계기술이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됐다.

LG정보통신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CDMA 이동통신망의 효율적인 설계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망 설계 시뮬레이터(모델명 : TelAIR)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LG정보통신이 개발한 CDMA 무선망 설계 시뮬레이터는 최적의 이동통신 서비스 지역 설계,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의 도달거리 및 감쇄정도 분석, 기지국 구축후 도심지의 환경변화와 사용자 증가에 따른 서비스 지역 관리 등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 있어 이동통신가입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가능케 해주는 첨단 기술이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해 도로, 하천, 건물, 산, 강 등 무선전파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지형정보를 고려할 수 있어 무선망 구축시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원천코드 개발기술 및 GIS 데이터 획득 기술 등 전과정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일반 PC 및 UNIX 환경에 동시 구축돼 있어 외산에 비해 사용자 환경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적용이 쉽고 응용범위가 넓은 특징이 있다.

CDMA 무선망 설계 시뮬레이터(TelAIR)는 디지털 이동전화(DCN : Digital Cellular Network), 개인휴대통신(PCS), 무선가입자망(WLL : Wireless Local Loop) 등의 모든 무선통신망을 최적으로 설계하고 구축하는데 필요한 Tool로서 국내 업체중에는 LG정보통신이 유일하게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SOHO형
네트워크 신제품 출시

●
●
●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 위주의 SOHO 환경에 적합한 고효능의 저가형 네트워크 신제품(모델명 : Gold Stream LR3001)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환경에 적합한 라우터(Router)로 SOHO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고성능·소용량의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이들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각각 1개의 LAN포트와 WAN포트를 기본으로 체

택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단말기(PC)가 많은 경우 별도의 허브(Hub)로 단말기를 묶어 최대 250회선까지 사용할 수 있고 향후에는 디지털 전송장치(DSU : Digital Service Unit) 또는 디지털 가입자회선장치(DSL : Digital Subscriber Line) 등 고속 가입자 인터페이스 지원이 가능한 확장성이 우수한 장비이다.

세계 최초 WPAD기능의
망연동시스템 개발

●
●
●

LG정보통신

이동전화로 PC통신이나 기업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할 때 접속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국내업체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됐다.

LG정보통신은 CDMA 이동전화 및 PCS를 이용해 PC통신, 기업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경우 접속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WPAD(Wireless Packet Assembly/De-assembly) 기능을 장착한 CDMA 무선데이터 망연동시스템(모델명 : STAREX-IWF)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이동전화로 노트북과 연결해 PC통신, 기업정보통신망 접속 등의 서비스를 받

을 경우 이동통신망과 PC통신망, 기업정보통신망을 직접 접속하기 때문에 공중전화망을 거치는 기존방식에서 필요했던 20~40초 가량의 접속시간을 없애주므로써 보다 빠른 데이터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72g 세계 최경량
플립형 PCS출시**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은 플립형이면서도 배터리 포함 무게가 72g에 불과한 세계 최경량 PCS 단말기(모델명 LGP-6500F)를 개발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다 밝혔다.

이 제품은 LG정보통신이 지난해 출시한 막대 형태의 세계 최경량 단말기(LGP-6400F)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소형배터리(리튬폴리머) 채택시 무게 72g, 두께 17mm에 불과한 초경량 초소형 제품이다.

또한 원터치 진동기능은 물론 LCD 화면의 색상변화(녹색·적색)로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정숙모드, 자동응답기능 등 다양한 고객편의기능이 있으며 문자 방송 수신과 최신 멜로디의 벨소리 다운 기능 등 첨단 서비스 수신 기능도 채택됐다.

**다채널 음성통신용
네트워크장비 선택**

컨택트기술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잡은 게임방을 겨냥한 음성통신 네트워크 장비가 개발됐다.

서울대 컴퓨터기술공동연구소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 컨택트기술은 게임방에서 동시에 최대 48명의 사용자들이 음성채팅을 하면서 네트워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실시간 다채널 음성통신 네트워크 장비인 「보이스링크」를 개발, 출시했다.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네트워크 게임은 주로 여러명이 그룹을 이뤄 상대 그룹과 게임을 하는 형식이어서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 그룹원들 간의 작전회의가 수시로 열리나 현재까지는 문자채팅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 제품을 설치하면 원하는 사람과 음성대화를 통해 작전을 상의할 수 있으며 그룹별 설정은 물론 어떠한 조합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PC에 설치돼 있는 사운드카드의 출력을 보이스링크에 연결하고 보이스링크의 출력포트를 PC에 연결하면 된다. 랜카드와 별도로 운용돼 게임이나 네트워크 속도

에 전혀 부하를 주지 않으며 설치도 간편하다.

**고속 인텔리전트
허브 출시**

콤텍시스템

콤텍시스템이 최근 네트워크 관리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10/100Mbps 고속 인텔리전트 허브인 「랜마스터32300(모델명 X-TAL32316S/16M/24S/24M)」시리즈를 출시했다.

콤텍시스템은 기존의 국산 네트워크 장비가 국내시장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제품은 미국의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와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등의 인증마크를 획득, 수출시장개척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콤텍시스템에서 선보인 랜마스터32300 시리즈는 콘솔포트를 통한 근거리 관리가 가능하고 SNMP 매니저를 이용한 원격관리 기능을 제공, 네트워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전용 포트 방식에 의한 확장(스태커블) 기능을 제공,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3대의 허브 스택이 가능하며 최대 72 포트까지 확장할 수 있다.

PFC회로 리액터

개발



창성

창성은 최근 전자제품의 전력 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PFC(Power Factor Corrector) 회로에 사용되는 리액터 10여종을 개발, 오는 7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성이 6개월에 걸쳐 개발한 이 제품들은 금속분말 코어를 이용한 것으로 에어컨·냉장고·세탁기·와이드TV 등 각종 전자제품의 전력효율을 높이고 소음을 줄이는 데 적용할 수 있어 앞으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회사는 특히 현재 히타치·마쓰시타전기·산켄 등 일본 전자업체들을 대상으로 PFC회로용 리액터에 대한 품질승인 획득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일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성은 우선 초기에는 월 20만개의 제품을 생산,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올해말까지 월 생산량을 50만개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공업용 pH/ORP

계측기 첫 국산화 성공



천세산업

디지털 방식으로 수소 이온 농도(pH)나 산화 및 환원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공업용 계측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계측기 전문업체인 천세산업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채용,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용이 편리한 고성능 pH/ORP 컨트롤러인 「메스타」를 국산화했다고 밝혔다.

pH/ORP 컨트롤러는 각종 약품이나 물질의 수소 이온 농도와 산화환원 전이(ORP)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그동안 아날로그 방식이 주로 사용돼 왔으며 디지털 방식으로 개발하기는 천세산업이 처음이다.

이 제품은 간단한 기능키 조작으로 pH값을 4, 7, 9 단계로 자동교정할 수 있는 자동 단계 조정과 피검액 온도를 자동으로 연산해 pH값을 보상하는 온도보상(ATC)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야간에 원거리에서 판독이 용이하도록 액정화면 라이트 기능을 제공하며 기록계·지시

계·PLC 등 각종 부가기기와 접속할 수 있는 절연형 출력 전송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측정된 각종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어 수시로 측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 모듈산업 참여



한국단자공업

한국단자공업은 지난해 일본 자동차 관련 전장부품업체인 야자키사와 자본 및 포괄기술 제휴협정을 맺은 것을 계기로 자동차용 커넥터를 비롯해 와이어 하네스, 교통정보시스템 관련부품 등 자동차부품 모듈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단자공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착수한 자동차부품 모듈사업 참여여부 관련 시장조사가 최근 참여쪽으로 정리됨에 따라 현재 구체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